

## 黃帝內經의 몇몇 句들에 대한 對句法적 研究(2)

金 仁 洛

### 1. 緒論.

『黃帝內經素問』, 『平人氣象論篇』, 과 『玉機眞藏論篇』에서 對句法的으로 問題示되는 句節 넷을 選擇하여 對句法에 充實하게 校正하고, 既存의 解析에서 適當한 것을 고르거나 解析을 새로이 하였다.

### 2. 研究對象.

1. 人一呼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定息, 脈五動, 閏以太息, 命曰平人. (平人氣象論篇)
2. 長夏胃微軟弱曰平, 胃少弱多曰脾病, 但代無胃曰死, 軟弱有石曰冬病, 弱甚曰今病, 藏眞傳於脾, 脾藏肌肉之氣. (平人氣象論篇)
3. 銳堅, 如鳥之喙, 如鳥之距, 如屋之漏, 如水之流. (平人氣象論篇)
4. 其來如水之流者, 此謂太過, 病在外.  
其來如鳥之喙者, 此謂不及, 病在中. (玉機眞藏論篇)

### 3. 本論

1. 人一呼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定息, 脈五動, 閏以太息, 命曰平人.

이 句節에 대하여 歷代 注釋家들의 意見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脈五動까지와 閏以太息을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呼吸定息은 숨을 내쉴 때 脈이 두 차례 뛰고, 들이쉴 때 역시 두 차례를 뛰며 숨쉬기를 멈춘 사이에 脈이 한 차례 뛰므로, 결국 脈은 다섯 차례 뛰게 된다고 본다. 閏以太息은 마치 閏달이 있듯이 숨쉬는 것도 가끔씩 크게 숨을 쉬고, 脈도 한 두 차례 더 뛰게 되어 결국 여섯 차례나 일곱 차례를 뛰었다고 본다.<sup>1)</sup>

다른 하나는 呼吸定息까지와 脈五動, 閏以太息을 내용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번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으로서 한 번 숨쉬는 것으로 하여, 脈은 네 차례 뛰고 가끔씩은 閏달과 같이 크게 숨을 쉬어, 脈은 다섯 차례를 뛰었다고 본다.<sup>2)</sup>

이러한 註釋이 과연 實際와 맞는가?

우선 實事求是의 精神을 살려서 나 자신이 숨쉬고 脈뛰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

- 1) 王冰: 黃帝內經素問, 臺北, 旋風出版社, 1973.  
張隱庵, 馬玄臺: 張馬合註黃帝內經, 臺北, 大聯國風出版社, 1976.  
高世栻: 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張景岳: 類經.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武長春, 張登本: 內經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楊유걸;
- 2) 郭霽春編著: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7.

지만 이렇지는 아니하다.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太素』에서는 「15 尺寸診」에 이 부분이 나오지만 呼吸定息, 脈五動이란 말이 아예 없다.

『靈樞』「五十營」에서는 呼吸과 脈搏 그리고 氣가 가는 거리를 관련지어서 “故人一呼吸脈再動, 氣行三寸, 一吸脈亦再動, 氣行三寸, 呼吸定息, 氣行六寸, 十息, 氣行六尺”이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한번 숨을 내쉴 때 脈은 두 차례 뛰고 氣는 3寸을 간다. 들이쉴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呼吸定息을 숨을 내쉬고 들이쉴 뒤부터 다시 내쉬기까지 숨쉬기를 멈추는 것으로 본다면 “氣는 6寸을 간다”라는 말은 숨쉬기를 멈춘 사이에 氣가 6寸을 간다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脈은 숨을 내쉬는 것에서 부터 들이마시고서 멈추었다가 다시 내쉬기까지에 12寸을 가게 된다. 脈 뛰는 회수로 본다면 내쉬고 들이쉴 때까지에 4차례 뛰고 숨을 멈춘 사이에 4차례 뛰어 결국 8차례 뛰는 것이 된다.

이것은 脈이 다섯 차례 뛰는 것과는 서로 모순된다.

그러므로 『太素』와 같이 呼吸定息, 脈五動을 지워야 한다. 아니면 呼吸定息은 그대로 두고 脈五動만이라도 지워야 한다.

그리고 ‘呼吸定息’은 ‘한차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으로서 한 차례 숨쉬는 것으로 한다’라고 보아야 한다. 숨을 내쉴 때에 脈은 두 차례 뛰고 氣는 3寸을 가며 들이쉴 때에도 脈은 두 차례 뛰고 기는 3寸을 가서 결국 한차례 숨쉴 때에 脈은 4차례 뛰고 氣는 6寸을 간다.

『內經』에서는 醫師가 건강함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脈이 뛰는 것을 셀 때에 요사이 우리들이 하듯이 시계를 들여다보고서 1분에 몇 차례 뛰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자신이 숨쉬는 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환자가 脈이 몇 차례 뛰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러하므로 앞 문장에서 의사는 숨쉬기를 고르게 하여서 환자의 脈뻐움을 살핀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숨쉬는 것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때때로 한숨을 쉬는 것이 정상이고 이에 따라서 脈뛰는 것도 달라진다면 그리고 이것이 정상이라면 숨쉬기를 고르게 하라는 말은 의미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脈박수도 애매해진다.<sup>3)</sup>

대구법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가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한번 숨을 내쉬는 동안에 脈이 한 차례를 뛰고 들이마시는 동안에도 脈이 한 차례를 뛰면 기운이 적은 것이고, 세 차례씩 뛰면 溫病, 風病, 痺病이며, 네 차례 이상씩 뛰면 죽는다고 하였다. 숨을 멈춘 사이에 脈이 뛰다거나 크게 숨을 쉰다는 말은 없다.

결국 한번 숨쉬는 동안에 脈이 네 차례를 뛰면 정상이고, 脈이 두 차례를 뛰면 기운이 적은 것이며, 여섯 차례 뛰면 溫病이나 風病, 痺病이고, 여덟 차례 이상이면 죽는다는 의미이다.

이로서 본다면 정상인의 호흡수와 脈박수가 1 : 4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남는다.

3) 『內經』에서 太息이 사용된 경우는 『靈樞』「口門」에서 찾을 수가 있으나 의미는 한숨이나 탄식이어서 病的이다.

먼저 숨쉬는 것과 脈 뛰는 것을 1분간의 기준으로 볼 때 호흡이 18 회라면 脈박은 이의 4 배인 72 회가 된다. 호흡을 느리게 한다면 脈박도 느려진다. 그리하여 1 분간에 호흡을 16 회한다면 脈박은 이의 4 배인 64 회를 하게 된다. 『內經』에서 호흡을 고르게 하라고 하지만 1 분간에 몇회를 호흡하는 것이 이상적인지가 명확치 않다.

그리고 『靈樞』「五十營」에서 호흡을 하루에 13,500 회한다고 하였다. 이를 1 분간으로 환산한다면 호흡수는 9,375 회이고 脈박수는 이의 4배가 된다. 이것 역시 실재와는 거리가 멀다.

2. 長夏胃微軟弱曰平, 胃少弱多曰脾病, 但代無胃曰死, 軟弱有石曰冬病, 弱甚曰今病, 藏眞傳於脾, 脾藏肌肉之氣.

이 구절을 살펴본다면 다섯 단계로 논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正常脈, 病脈, 死脈, 그리고 다른 계절에 병들 脈과 지금 바로 병이 드는 脈이다.

그런데 앞뒤 문장을 살펴본다면 正常脈은 胃氣는 있고 眞藏脈은 조금 드러나며, 병든 脈은 胃氣는 조금이고 眞藏脈은 많이 드러나며, 死脈은 胃氣는 없고 오로지 眞藏脈만 드러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구절에서는 正常脈을 胃氣가 있고 軟弱함은 조금이라고 하였으므로 死脈에서 胃氣는 없고 軟弱함만 드러난다고 해야한다. 그러한데도 死脈에서 軟弱하다고 하지 않고 代脈이라고 하였으니 代는 軟弱을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가 있다. 아니면 정반대로 正常脈에서 微代라고 해야할 것을 微軟弱하다고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다.

結論을 미리 말한다면 軟弱과 代를 적절히 사용한 것이다. 代를 軟弱으로 하거나 軟弱을 代로 해서는 아니된다. 왜 그러한가?

먼저 代와 軟弱은 의미가 무엇이 다른가를 살펴보자.

脾臟의 正常脈을 여기에서는 微軟弱하다고 하였는데 이 편 뒤쪽에서는 “和柔相離, 如鷄踐地”라고 하였다.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앞뒤 문장을 살펴보자. 心の 正常脈은 累累하다고 하고서 이를 사물에 비유하여 如珠連, 如循環玆이라고 하였다. 肺의 正常脈은 厭厭섭섭하다고 하고서 如落榆莢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腎의 正常脈은 喘喘累累하다고 하고서 如旬이라고 하였다.<sup>4)</sup>

이러하므로 脾의 正常脈은 和柔하며 이를 실물에 비유하면 相離와 같고 鷄踐地와 같다고 보아야하며 和柔와 相離사이에 如를 보충하여야 한다.

相離를 張介賓은 ‘분명히 드러남’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和柔와 如相離 그리고 如鷄踐地가 의미가 같음을 생각한다면 相離는 단적으로 보아야 한다.

鷄踐地는 닭이 땅을 디딜 때에 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脾의 正常脈은 和하고 柔하여 마치 단적인 것처럼 그리고 닭이 조심스럽게 땅을 딛는 것처럼 고르고 부드럽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렇지 아니하고 겹싸고 힘차다면 脾가 병든 것인데 이를 『內經』에서는 닭

4) 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肝의 正常脈을 濡弱招招, 如揭長竿末梢라고 하였는데 濡弱과 招招사이에 如자를 보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肝의 正常脈은 濡弱하고 이를 사물에 비유하면 남을 부르려고 손짓하는 것과 같고 장대끝을 들 때의 느낌과 같다.

이 말을 드는 것에 비유하여 “實而盈數，如鷄舉足”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脾의 正常脈을 표현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胃氣가 있으면서 약간 軟弱하다고 하였고 다른 하나는 和柔하다고 하였다. 그러면 軟弱, 和와 柔는 다른 점이 무엇인가?

弱脈이 『內經』에서 사용된 경우로서 胃氣가 있을 때의 脈을 들 수가 있다. 『素問』「玉機眞藏論篇」에서는 胃氣가 있을 때의 脈을 弱하고도 滑하다고 하였다. 弱이란 힘이 없는 것이어서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 弱한 것 자체로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기에 滑脈이 같이 兼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가 살아난다. 脾의 正常脈에서도 弱할뿐만 아니라 軟하다는데 重點이 있다. 그리고 柔軟이라는 말이 있듯이 軟弱은 柔와 의미가 通한다고 본다.

和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서는 먼저 脾의 眞藏脈을 살펴보자. 이 편에서는 但代無胃라고 하였는데 「玉機眞藏論篇」에서는 弱而乍數乍疎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脾가 眞藏脈을 드러내면 軟한 느낌은 사라지나 弱한 느낌은 남는다. 그뿐만 아니라 잠시는 빠르고 잠시는 느려서 脈이 뛰는 것이 고르지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和한 感은 사라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和란 脈이 뛰는 것이 고르다는 意味이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弱脈이 있으면서 石脈이 있으면 겨울에 가서 병들고 石脈이甚하면 지금 바로 병든다고 한 것도 문제가 된다.

우선 이 구절을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하다. 脾臟의 기운이 줄어들면 腎臟의 기운이 침입한다. 만일 계절이 겨울철이 된다면 腎臟의 기운이 최고로 왕성해 지는 때이므로 腎臟은 보다 더 脾臟을 힘차게 억누를 것이고 脾臟은 腎臟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병들게 된다.

만일 石脈이 심하다면 이는 腎臟의 기운이 脾를 많이 억누른다는 증거이므로 비록 계절은 겨울이 아닐지라도 脾臟은 바로 병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五行으로 볼 때 木이 土를 剋하므로 腎의 石脈이 아니라 肝의 弦脈이어야 하고 겨울이 아니라 봄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앞뒤 문장을 살펴본다면 五行의 相剋을 적용하는게 아님을 알 수가 있다.

五行相剋으로 본다면 金이 木을 剋하는 것은 옳아도 木이 金을 剋하지는 않는다. 水가 火를 억누르는 해도 火가 水를 억누르지는 않는다.

그러한데도 肝과 肺 그리고 心과 腎을 서로 견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가을에 弦脈이 심하면 肺가 병들고 겨울에 鈎脈이 심하면 腎이 병든다고 하였다. 五行相剋으로 본다면 弦脈은 鈎脈이어야 하고 鈎脈은 代脈이어야 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五行에서 土가 木, 火, 金, 水와는 특이한 점이 있음에서 찾을 수가 있다. 木, 火, 金, 水는 1년에 각각 72일씩을 차지한다. 土만 때로는 72일을 차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18일씩 나뉘어져서 木, 火, 金, 水の 72일 다음에서 18일씩 차지하기도 한다. 이 편에서는 土를 두번째 방법으로 본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木과 金이 서로를 견제하고 火와 水가 서로를 견제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周易에서 水火不相射라고 하였고 龍虎相搏이라고 한 것과 通한다.

이러한 例는 『素問』「宣明五氣篇」에서 찾을 수가 있다. 자세히 말하면 『玉水』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五行의 相剋을 사용하였으나, 『太素』「14 四時脈診」에서는 脾脈을 없애고 1년을 4철로 나누어서 가을인데도 木脈을 얻거나, 겨울인데

도 여름脈을 얻으면 죽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素問』「玉機眞藏論篇」에서는 脾臟은 독립된 脈이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脾가 정상일 때는 脈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太過이거나 不及일 때에야 비로소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로서 본다면 脾의 正常脈을 軟弱하다거나 和柔하다고 한 것은 실제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는 基本脈으로도 볼 수가 있다.

### 3. 銳堅, 如鳥之喙, 如鳥之距, 如屋之漏, 如水之流.

앞에서는 脾의 眞藏脈을 弱하면서도 잠시는 촘촘하게 뛰고 잠시는 느슨하게 뛰었다고 하였다. 이를 달리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다. 『太素』「15 五臟脈診」에서는 銳堅이 堅銳로, 鳥는 鳥로 되어있다. 그리고 如屋之漏와 如水之流는 순서가 바뀌어져있다.

音韻學的으로 본다면 銳와 喙 그리고 距가 韻을 이루므로 『太素』가 옳다고 본다. 弱而乍數乍疎와 堅銳, 如鳥之喙, 如鳥之距, 如水之流, 如屋之漏를 비교한다면 弱而乍數은 銳堅, 如鳥之喙, 鳥之距와 같고 乍疎는 如水之流, 如屋之漏와 같다. 이의 근거는 이러하다. 먼저 까마귀가 옳은가 새가 옳은가? 새라면 독수리같이 큰 것인가? 아니면 참새와 같이 작은 것인가?

앞에서 脾의 眞藏脈은 弱하기는 하여도 軟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러하므로 까마귀라면 지나치게 크고 힘이 있어서 약하다는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새라고 하더라도 참새와 같이 작은 새라야지만 약하다는 표현과 잘 어울린다.

喙와 距는 動詞인가, 名詞인가?

이도 마찬가지로 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잠시는 빠르다는 의미도 담으려면 동사로서 부리로 모이를 쪼는 듯하고 폴짝폴짝 뛰는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아무리 작은 새일지라도 부리나 뒷발톱이 軟弱하다는 의미는 어색하다. 이러하므로 鳥之喙, 鳥之距는 참새와 같이 작은 새가 부리로 쪼는 듯하고 폴짝폴짝 뛰는 듯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喙는 명사를 동사로 활용한 것이다. 死脈에 雀啄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같다고 본다.

銳堅은 글자 자체로만 본다면 아주 힘차고 날카롭고 굳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弱한 것이 기본으로서 참새와 같이 작은 새가 쪼고 뛰는 것이 그다지 힘찬 것은 아니다.

如水之流, 如屋之漏는 銳堅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본다. 지붕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장마철에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방울씩 새는 것뿐이다. 그리고 鳥之距과 鳥之喙가 같은 의미이듯이 水之流와 屋之漏도 의미가 같아야지 대구가 된다. 그러하므로 流는溜를 빌린 글자로 보아야 한다.溜는 처마에서 한방울씩 물이 떨어지는 것이다.<sup>5)</sup> 작은 새가 모이를 쪼는 것이나 폴짝폴짝 뛰는 것은 재빠르지만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느리다. 앞의 것이

5) 高紀武: 醫考文語法與修辭, 青海市, 青海人民出版社, 1987, 88쪽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다. 張介賓은 水之流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물이 흘러 가버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脈도 한 번 뛰고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대구법으로 본다면 이러한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미를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카롭고 굳지만 뒤의 것은 반대이다.

眞藏脈은 아니지만 脾臟의 기운이 줄어든 때에도 脈의 빠르기가 고르지 아니하게 된다. 『醫學入門』 「內傷 調理脾胃」에 의하면 脈이 緩하고도 柔하며 힘이 없고 때때로 숨어서 나오지 아니하면 四君子湯이나 藜苓白朮散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脈이 나올 때 四君子湯이나 藜苓白朮散이 확실히 효과가 있음을 본인은 누누이 임상에서 경험한다.

또 한가지 감별해야 할 경우는 「平人氣象論篇」에서 “少陽脈至，乍數乍疎，乍短乍長”이라고 한 경우이다. 여기에서 少陽이 의미하는 바는 論難의 餘地가 있다. 다만 傷寒論의 小柴胡湯證에 寒熱往來가 있고 脈狀도 弦脈이면서 잠시는 빠르고 잠시는 느린 것을 볼 수 있다. 그러하므로 少陽脈을 少陽病으로 볼 수도 있다.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脈이 빠를 때는 新陳代謝가 촉진되므로 熱이 나고 느릴 때는 이와 반대가 된다. 본인이 임상한 바로는 弦脈이고 빠르기가 고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脈이 뛰는 위치조차도 前後左右로 불안정하다. 診脈을 하고 있노라면 脈이 뛰는 것이 2, 3, 4손가락의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前後左右로 달라지게 된다. 이는 小柴胡湯뿐만 아니라 溫膽湯이라던가 逍遙散證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다. 脈狀이 고르지 않듯이 체온도 감정도 혼란스럽다. 이와같이 少陽病의 脈狀도 고르지가 않지만 脾의 眞藏脈이나, 四君子湯, 藜苓白朮散證의 것과 다른점은 弦脈이어서 힘이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軟弱한 脈은 代脈과는 의미가 다르다. 軟弱은 脾의 正常脈으로서 弱하면서도 軟할뿐만 아니라 和柔와 같이 脈뛰는 것도 고르다. 하지만 代脈은 眞藏脈으로서 힘이 없고 빠르기는 고르지가 아니한 脈이다.

4. 其來如水之流者，此謂太過，病在外。

其來如鳥之喙者，此謂不及，病在中。

「平人氣象論篇」에서는 流는 溜를 빌린 글자이었고 喙는 名詞를 動詞로 轉用한 것이었고 眞藏脈을 뜻하였다. 하지만 이 篇에서는 流와 喙는 의미가 글자 그대로이며 脾臟의 太過와 不及을 가리킨다.

脾는 六氣중에서 濕과 관련된다. 그리하여 脾가 太過가 되면 濕이 많아져서 물이 되고 不及이 되면 濕氣 조차도 모자라서 마르게 된다. 이러하므로 太過일 때는 濕氣가 물이 되어 흐르듯이 脈도 큰물이 흐르는 것처럼 된다. 6)

不及일 때는 濕氣가 마르듯이 脈도 가늘게 되어 마치 새의 부리끝이 뾰족한 것처럼 된다. 症狀을 본다면 脾가 太過일 때는 물이 되어 무거워지므로 팔다리도 무거워 들 수가 없게 된다. 不及일 때는 九竅로 보낼 물기운조차 모자라게 되어 九竅가 닫히게 된다.

#### 4. 結論.

1. 脈五動，閏以太息은 削除해야 한다. 그리고 ‘呼吸定息’의 意味는 ‘ 한번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으로써 한번 숨쉬는 것으로 한다’이다.
2. 代는 軟弱과는 意味가 달라서 弱하면서도 잠시는 촘촘하게 뛰고 잠시는 느슨

6) 朴一洪 李在英 姜鎭春: 『譯注黃帝內經素問 卷一』, 서울, 松山出版社, 1981, 193 쪽. 이 책의 실제 著者는 李在英 先生이다. 先生은 法律家이므로 韓醫師의 命意로 出版하였다.

하게 뛰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軟弱有石曰冬病은 五行의 相剋을 適用하지 않고 木과 金 그리고 水와 火가 서로를 牽制하고 水가 土를 牽制하는 方式을 適用하였다.

3. 銳堅, 如鳥之喙, 如鳥之距와 如屋之漏, 如水之流가 대구이며 의미는 반대이다. 銳堅은 堅銳로 校正해야하며 의미는 힘있는 것이 아니고 弱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如鳥之喙, 如鳥之距는 사물에 비유한 것으로서 脈이 잠시동안 촘촘히 뿜을 의미한다. 如屋之漏, 如水之流는 脈이 잠시동안 느슨하게 뛰는 것을 의미하는데 流는溜를 빌린 글자이다.

4. 水之流는 濕이 많아서 물이 되어 흐르는 것처럼 脾脈도 크다는 의미이다. 鳥之喙는 濕이 적어서 흐를 물이 없는 것처럼 脈도 새의 부리처럼 가늘다는 의미이다.

#### 參 考 文 獻

1. 朴一洪 李在英 姜鎭春: 譯注黃帝內經素問 卷一, 서울, 松山出版社, 1981.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3.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3.
4. 高紀武: 醫古文語法與修辭, 青海省, 青海人民出版社, 1987.
5. 高世식: 素問直解,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2.
6. 郭靄春篇著: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7.
7. 武長春, 張登本: 內經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8. 양유걸;
9. 王琦: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1983.
10. 王冰: 黃帝內經素問, 臺北, 旋風出版社, 1973.
11. 張景岳: 類經.
12. 張隱庵, 馬玄臺: 張馬合注黃帝內經, 臺北, 大聯國風出版社, 1976.